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또래소외 간의 종단적 관계

김경은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Analysis of Longitudinal Relation of Children's Social Withdrawal and Peer Alienation

Kyoungeun, Kim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또래소외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검증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의 초등학교 1학년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고,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참여한 총 2,110명의 아동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아동의 사회적 위축의 변화와 또래소외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측정된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3차년도와 5차년도에 측정된 또래소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첫째, 아동의 사회적 위축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아동의 사회적 위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사회적 위축의 초기치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변화율에서도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사회적 위축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3학년에 측정된 또래소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의 사회적 위축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5학년에 측정된 또래소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또래소외를 예방하거나 중재하기 위한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peer alienation among Korean children. The survey study participants were 2,110 children in 2nd, 3rd, 4th, and 5th grades. The 5-year longitudinal data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of 1st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 cohort was used. Latent Growth Modeling was applied to analyze the causality over time of social withdrawal and peer isola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trajectories of children's social withdrawal decreased over time. Children's social withdrawal showed significant individual differences in terms of initial value and rates of change. The initial value and slope of children's social withdrawal had an effect on the peer alienation in the 3rd grad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peer alienation in the 5th grade.

Keywords : children, KCYPS,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peer alienation, social withdrawal, longitudinal study

1. 서론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접어들면서 아동의 사회적 활동 반경이 점점 더 넓어짐에 따라 아동이 집이 아닌 외부 환경에서 보내는 시간은 더 길어진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 평균 등학교 시간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6시간 20분 정도를 학교에서, 주당 평균 11시간 35분을 사교육 기관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처럼 초등학생들이 하루 일과의 상당 시간을 집이 아닌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게 됨에 따라 아동은 가족 외에 또래, 교사

이 논문은 2016년도 남서울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Corresponding Author : Kyoungeun, Kim(Namseoul Univ.)

Tel: +82-41-580-2328 email: leejay48@chol.net

Received January 24, 2017

Revised February 14, 2017

Accepted March 10, 2017

Published March 31, 2017

및 다른 성인들과 폭넓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데,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뿐 아니라 학교 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중 특히 또래관계는 부모나 교사관계와는 달리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서, 아동기에 형성되는 또래 관계는 아동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동기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또래의 수도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아동은 부모의 감독 하에 구성된 또래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구성된 또래에 이르기까지 더 다양한 집단의 또래를 만나게 됨에 따라 초등학교 시기 동안 또래관계의 양과 질은 극적으로 변화한다[2]. 이 시기 아동들에게 또래는 친밀감과 소속감을 제공하는 주요한 원천으로서[3] 또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아동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해한다. 또한 또래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장으로 기능하는데[4], 아동들은 또래관계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기술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기 때문이다[5].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아동의 또래관계 혹은 또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져왔고, 아동들이 다른 또래들과 잘 지내는 법을 어떻게 배워 가는지, 왜 이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노력해왔다[6]. 여러 연구에서 긍정적 또래관계는 심리적 안정감, 자아존중감이나 학교적응 등과 같은 아동의 긍정적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반면[7, 8], 부정적인 또래관계는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아동기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인기 이후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9, 10, 11].

한편, 또래소외는 또래관계의 부정적 측면을 반영한다. 소외감(alienation)이란 개인이 속해야 하는 집단이나 활동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나 그로 인한 경험[12]으로서,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분리 또는 차단되었다고 느끼거나, 그들과의 관계가 소원하다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13]. 일반적으로 인간은 사회적으로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거나 친밀감과 통합성을 느낄 때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되었다고 느낄 때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14].

학령 중기로 접어들수록 또래는 사회적 지지의 더 중요한 근원이 된다[15]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특히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또래소외는 그 중요성이 더 크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또래소외는 친구관계 만족도, 또래와의 긍정

적 상호작용, 또래괴롭힘이나 따돌림, 또래거부 경험 등과 정적 혹은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17]. 또래로부터 소외된 아동은 우울과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갖게 될 위험이 높고[17, 18] 슬픔, 외로움, 수치심, 당혹감, 사회적 불안, 사회적 위축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19] 학업성취나 출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0]. 뿐만 아니라 아동기 또래소외는 이후 청소년기, 성인기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0세 때의 또래소외 경험은 20대 성인기 사회·정서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10] 영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5세 때의 또래소외 경험은 20대 성인기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아동이 학령기에 경험하는 또래소외가 아동의 심리적 특성과 맞물려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래소외를 경험하는 아동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보이는 주요 특성 중 하나가 사회적 위축이다. 사회적 위축이란 주변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행동적 경향이나 태도로서[6],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들은 수줍어하거나 억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며 사회적 관계를 잘 맺지 않으려한다[21]. 또한 이들은 또래와 어울리는 것을 피하거나 대인관계에서 벗어나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한다[22].

이러한 사회적 위축은 까다로운 기질, 불안, 낮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기술 부족 등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에서 비롯되거나[23] 어머니의 부적절한 양육에 의해 유발된다[21]. 여러 연구에서 아동의 사회적 위축 행동은 수줍음, 행동 억제, 고립과 거부, 사회적 침묵, 수동성, 또래 무시 등과 같은 구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2].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들은 대체적으로 수줍어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해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데, 이러한 행동 특성들이 역으로 또래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을 높게 된다[22, 24].

사회적 위축과 또래관계 간의 관계에 대한 중단 연구에 따르면, 몇몇 연구에서는 초기 아동기부터 중기 아동기에 걸쳐 사회적 위축 행동과 또래 거부 경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25, 26] 사회적 위축과 또래관계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27]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몇

몇 연구에서는 모든 위축된 아동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위축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27, 28]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아동의 사회적 위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러한 변화가 사회적 위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또래소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지원함에 있어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의 변화가 청소년의 행동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에 대한 연구[29]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발달 궤적을 보이는지, 사회적 위축에 개인차가 존재하는지, 이러한 사회적 위축이 또래소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의 변화와 또래소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종단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 중 초1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아동청소년패널 조사는 다단계층화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초1 패널의 2차년도(초2)부터 5차년도(초5)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차년도에는 총 2,248 사례가 조사되었으나 3차, 4차, 5차 년도에 모두 응답하지 않은 사례를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서는 총 2,100 사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year	gender		
	boys	girls	total
2nd year	1,159(51.6%0	1,089(48.4%)	2,248
3rd year	1,134(51.5%0	1,066(48.5%0	2,200
4th year	1,093(51.6%0	1,026(48.4%0	2,119
5th year	1,084(51.4%0	1,026(48.6%0	2,110

2.3 측정도구

2.3.1 사회적 위축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은 Kim & Kim[30]의 사회적 위축 척도를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사회적 위축은 주위 환경이나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행동이나 태도로서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해 한다.’ 등의 5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경향이 높다.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초1 연령집단의 경우 사회적 위축은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에 측정되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때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α .90, .90과 .86으로 나타났다. 모형 분석에서는 사회적 위축을 2개의 측정 변수로 구성하여 잠재 변수화하였는데, 이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측정변수의 수를 줄여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31].

2.3.2 또래소외

본 연구에서 또래소외는 Armsden & Greenberg[32]의 애착척도(IPPA)를 변안, 수정한 문항을 활용하여 구성된 또래애착 척도의 하위 요인 중 소외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래소외는 친구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경험이나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등과 같은 문항이 포함된다. 또래소외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소외가 높음을 의미한다.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초1 연령집단의 경우 또래관계는 3차년도, 5차년도에 측정되었다.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때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α .54와 .65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사회적 위축과 또래소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2차년도(초2)에서 5차년도(초5) 기간 동안의 자료를 토대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s)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세 개 시점 이상에 걸쳐 반복측정된 종단 자료에 대해 집단의 평균뿐 아니라 변화율에 있어 개인차가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32]. 사회적 위축의 경우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의 3개 시

점이 있어 무변화 모델과 선형모형을 경쟁모형으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위축이 3차년도와 5차년도 또래소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하였다. 초기치와 기울기 추정 시 각 척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고[33], 반복측정 시 발생한 결측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 정보 최대우도법(FIML)을 사용하여 결측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모형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인 χ^2 검증 방법과 함께 상대적합지수인 CFI, TLI, RMSEA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또래소외의 일반적 경향

측정시점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또래소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 위축의 경우,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의 평균은 각각 2.13($SD=.66$), 2.08($SD=.65$), 1.93($SD=.72$)이다. 2차년도에서 4차년도로 갈수록 사회적 위축의 점수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래소외의 경우, 3차년도와 5차년도의 평균은 1.79($SD=.77$), 1.91($SD=.67$)이고, 또래소외의 점수는 3차년도에 비해 5차년도의 점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위축과 또래소외 시점별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왜도의 절대값 범위는 .03~.79였고, 첨도의 절대값 범위는 .04~.66이었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3.0 미만이고,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이면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2. Means and SDs for social withdrawal and peer alienation in three times

variable		min	max	M(SD)
social withdrawal	2nd year	1.00	4.00	2.13(.66)
	3rd year	1.00	4.00	2.08(.65)
	4th year	1.00	4.00	1.93(.72)
peer alienation	3rd year	1.00	4.00	1.79(.77)
	5th year	1.00	4.00	1.91(.67)

3.2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또래소외 간의 종단적 관계

사회적 위축과 또래소외 간의 종단적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변화함수를 적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하였다. 먼저 아동의 사회적 위축의 발달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위축의 변화가 일관되지 않거나 변화의 정도가 유의하지 않다고 가정하는 무변화 모형(Fig. 1)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적 위축이 일정하게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선형 변화모형(Fig. 2)을 적용하였다. 이 선형 모형에서는 사회적 위축이 일정하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아동의 사회적 위축이 아동의 또래소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된 연구모형(Fig. 3)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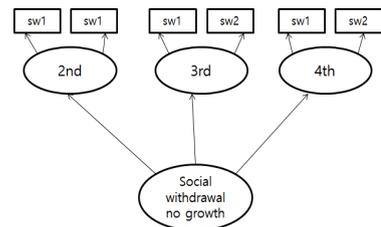


Fig. 1. no growth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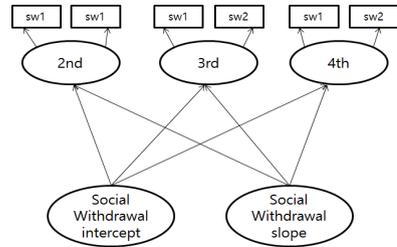


Fig. 2. unconditional linear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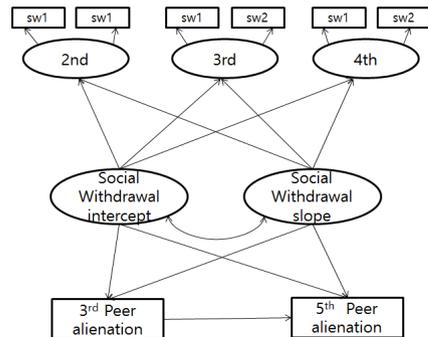


Fig. 3. conditional linear model(hypothesized latent growth model)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위축의 무변화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chi^2_{df=8}=319.92, p=.00, TLI=.96, CFI=.96, RMSEA=.12$).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적 위축이 일정하게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한 선형 변화모형을 적용한 결과 χ^2 통계량을 제외한 적합도 지수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_{df=10}=92.88, p=.00, TLI=.98, CFI=.99, RMSEA=.06$). 무변화모형과 선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더 간명한 선형모형이 더 적합함을 알 수 있다 ($\Delta\chi^2_{df=2} = 227.04, p < .001$).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의미미하게 변화함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위축의 초기치(intercept)와 변화율(slope)의 평균과 분산(Table 4)을 살펴보면,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위축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초등학교 2학년 시점에서 측정된 아동의 사회적 위축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위축이 변화하는 정도에도 개인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사회적 위축은 측정 시점마다 .08만큼 감소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위축의 초기치와 변화율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fit-index of models

model	χ^2	<i>p</i>	<i>df</i>	TLI	CFI	RMSEA
no	319.92	.00	8	.96	.96	.12
change model						
unconditional linear model	92.88	.00	10	.98	.99	.06
hypothesized model	98.58	.00	18	.98	.99	.04

Table 4. The change of social withdrawal in unconditional linear model

	Mean	SE	Variance	SE
intercept	1.94***	.02	.14***	.02
slope	.08***	.01	.12***	.02

****p*<.001.

최종적으로 사회적 위축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아동의 또래소외에 미칠 것이라 가정한 연구모형(Fig. 3)을 검증한 결과, χ^2 통계량을 제외한 적합도 지수는 양호하여 연구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_{df=18}=98.58, p=.00, TLI=.98, CFI=.99, RMSEA=.04$). 무변화모형, 선형모형

과 연구모형을 비교해보면(Table 3), 연구모형이 간명하고 적합도 지수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3차년도와 5차년도와의 또래소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계수는 Table 5와 Fig. 4에 제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위축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하였기 때문에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차년도에 측정된 사회적 위축의 초기치는 3차년도 또래소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16, p<.01$) 5차년도 또래소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2학년에 사회적 위축 성향이나 행동이 강할수록 초등학교 3학년 때 또래로부터 소외당하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학년 때 또래소외 경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위축의 변화율은 3차년도 또래소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13, p<.01$) 5차년도 또래소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회적 위축성향이나 행동의 변화율이 높을수록 또래소외의 경험은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 위축성향이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수록, 또래로부터 소외당하는 경험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학년 때 경험한 또래소외가 5학년 때 경험한 또래소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Parameter estimates of hypothesized latent growth model

		β	<i>b</i>	S.E.	C.R.
icept	→ 3rd peer alienation	.16**	.32	.10	3.14
slope	→ 3rd peer alienation	-.13**	-.28	.09	-3.01
3rd peer alienation	→ 5th peer alienation	.02	.02	.02	.97
slope	→ 5th peer alienation	.00	.01	.07	.09
icept	→ 5th peer alienation	-.06	-.10	.07	-1.42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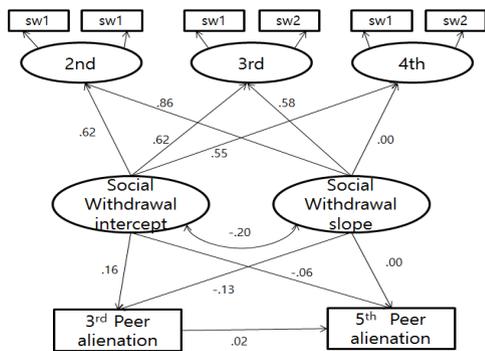


Fig. 4. standardized coefficient of hypothesized latent growth model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발달 궤적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사회적 위축이 또래소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아동의 사회적 위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사회적 위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의 초기치(intercept)와 변화율(slope)의 평균과 분산을 살펴보면,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위축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사회적 위축의 변화 양상에서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29]와 일치한다. 이는 초등학교 2학년 시점에서 아동이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는 것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위축이 변화하는 정도에도 개인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위축은 기질적 영향성도 높지만[23] 주변 환경이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교사는 위축된 아동들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들과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이 긍정적인 지지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연구결과[21, 25]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축의

발달 궤적을 살펴본 연구[35]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시간에 따라 유의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사회적 위축 문제의 하위 발달경로는 ‘높은-유지’, ‘낮은-감소’, ‘낮은-증가’ 경로를 나타내고, 85% 정도가 ‘낮은-감소’ 유형을 나타냈다. 또한 아동 중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사회적 위축의 발달 궤적을 살펴본 연구[28]에 따르면, 85% 정도가 ‘낮은-유지’ 경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8% 정도가 아동 중기에서 청소년기로 들어서면서 사회적 위축이 줄어드는 ‘감소’ 경로를 나타냈으며, 7% 정도가 아동 중기에서 청소년기로 들어서면서 사회적 위축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유형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연구들로서,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인 사회적 위축은 특히 또래관계나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는 아동기를 지나면서 아동이 주요한 주변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성향이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령 초기에서 학령 중기로 접어들면서 아동은 다양한 학교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나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발달 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능력에서의 개인차가 사회적 위축의 유지 혹은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추론된다.

이와 더불어 아동 초기부터 아동 후기, 청소년기까지 사회적 위축이 지속적으로 유지될수록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21]는 점을 고려해볼 때, 아동의 사회적 위축의 근원이 개인의 심리적 문제인지, 인지적 측면의 문제인지, 사회적 기술의 문제인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여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기 위한 부모나 교사, 또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종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위축의 초기치 및 변화율과 또래소외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측정된 사회적 위축의 초기치와 사회적 위축의 변화율은 3학년 때의 또래소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5학년 때의 또래소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2학년에 측정된 사회적 위축 성향이나 행동이 강할수록 초등 3학년 때 또래소외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학년 때 또래소외의 경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위축의 초기치가 단기적이지만 종단적으로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위

축된 아동들은 수줍어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 또래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척당하는 경험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21, 22, 24]나 아동기 사회적 위축은 장기적으로 또래소외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7]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들의 성향이나 행동 특성들은 또래 수용이나 친밀감 형성과 같은 긍정적 또래관계에서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결국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는 부정적 경험들은 이 아동들을 더욱 위축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학령 중기의 또래관계는 이후 중학교 전환 시기의 학교 적응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학령 중기에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진실된 우정을 형성하지 못하는 아동은 이후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해 할 뿐 아니라 학업성취가 낮고 결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7].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아동의 주요한 지지망인 부모나 교사가 사회적 위축과 또래소외 간의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위축된 아동들에게 개인적 혹은 관계적 측면의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는 2학년에서 4학년까지 측정된 사회적 위축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5학년 시기의 또래소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아동의 사회적 위축성향이나 행동이 또래소외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아동 중기 이후에 일어나는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변화들이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또래소외 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사회적 위축이 직접적으로 또래소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나 아동의 우울을 매개로 또래소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제 2차 성징이 초등 고학년에 흔히 나타나는데,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아동의 심리적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사춘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불안, 우울, 소외감, 스트레스 등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36]으로 인해 아동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나 활동을 더 선호하고, 오히려 다른 또래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스스로 위축되거나 관계성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학령 초기에서 학령 후기까지의 사회적 위축이 또래소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 중기

로 들어서게 되면서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개인적, 환경적 변화가 아동의 또래소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만큼 이러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사회적 위축과 또래소외는 최근 학교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왕따 등과 같은 학교폭력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적 접근에서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또래소외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척도 자체가 갖는 한계점을 고려해야 한다. 패널조사의 경우 척도에 충분한 문항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사용된 사회적 위축과 또래소외 척도 또한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또래소외의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후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이나 또래소외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위축을 아동이 지각하는 것뿐 아니라 교사나 또래가 지각하는 것 또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측되며, 또래소외도 아동이 지각하는 것 외에 부모, 교사, 또래로부터의 보고나 관찰도 포함된다면 보다 의미 있는 발달궤적을 추정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시기에 측정된 사회적 위축(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과 또래소외(3차년도,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다보니, 동시대적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기 못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또래소외는 아동기 뿐 아니라 이후 청소년기까지의 여러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9, 18]는 점을 고려해볼 때, 국내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또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종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위축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사회적 위축과 또래소외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동기 사회적 위축과 또래소외는 상호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또래소외를 예방하거나 중재하기 위한 학교프로그램이나 부모의 지지, 전문가의 지원 등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References

- [1] Yonhap News. *Korean high school students spend 12 hours in school*. 2015.08.26. Retrieved Dec. 12, 201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6/00000000AKR20150826156400004.HTML>. 2016.
- [2] K. H. Rubin, W. Bukowski, J. Parker,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6th edition):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pp. 571-645). New York: Wiley. 2006.
- [3] M. E. Gifford-Smith, C. A. Brownell, Childhood peer relationships: social acceptance, friendships, and peer network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1*(4), pp. 235-284, 2003.
DOI: [https://doi.org/10.1016/S0022-4405\(03\)00048-7](https://doi.org/10.1016/S0022-4405(03)00048-7)
- [4] C. Burto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259 845) Retrieved Dec. 28, 2016. <https://eric.ed.gov/?id=ED265936>, 1986.
- [5] S. R. Asher, S. Hymel, P. D. Renshaw. Loneli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4), pp. 1456-1464, 1984.
DOI: <https://doi.org/10.2307/1130015>
- [6] K. H. Rubin, R. J. Coplan, Paying attention to and neglecting social withdrawal and social isol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50*(4), pp. 506-534, 2004.
DOI: <https://doi.org/10.1353/mpq.2004.0036>
- [7] D. Gross-Manos, The role of peers in children's lives and their contribution to child well-being: Theory and research. In A. Ben-Arieh, F. Casas, I Frønes, & J. Korbin (Eds.), *Handbook of child well-being: Theories, methods and policies in global perspective*, Springer, pp. 1843-1863, 2014.
DOI: https://doi.org/10.1007/978-90-481-9063-8_176
- [8] K. Wentzel, S. Baker, S. Russell, Peer relationships and positive adjustment at school. In R. Gilman, E. S. Huebner, & M. J. Furlong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in schools*, New York: Routledge, pp. 229-243, 2009.
- [9] S. R. Asher, A. J. Rose, S. W. Gabriel, Peer rejection in everyday life. In Leary M.R. (Ed.), *Interpersonal rejection*(pp. 105 - 142). New York: Oxford, 2001.
- [10] C. L. Bagwell, M. E. Schmidt, A. F. Newcomb, W. M. Bukowski,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ce Development, 91*(Spring), pp. 25-49, 2001.
DOI: <https://doi.org/10.1002/cd.4>
- [11] P. McDougall, S. Hymel, T. Vaillancourt, L. Mercer, The consequences of early childhood rejection. In M. Leary (Ed.) *Interpersonal Reje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213-247, 2001.
- [12] S. J. Mann, Alternative perspective on the student experience: Alienation and engagement. *Studies in Higher Education, 26*(1), pp. 7-13, 2001.
DOI: <https://doi.org/10.1080/03075070020030689>
- [13] R. L. Calabrese, J Adams. Alienation: A Cause of Juvenile Delinquency. *Adolescence, 25*(98), pp. 435-440, 1990.
- [14] J. J. A. Denissen, L. Penke, D. P. Schmitt, M. A. G. Van Aken, Self-esteem reactions to social interactions: evidence for sociometer mechanisms across days, people, and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1), pp. 181-196, 2008.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95.1.181>
- [15] J. P. Allen, D. Land, Attachment in adolescence.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New York: Guilford, pp. 319- 335, 1999.
- [16] W. S. Choi, J. S. Kim, A Study on Alien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environmental variables. *Journal of Resource Development. 20*(1), pp. 131-140, 2001.
- [17] K. Robson, *Peer Alienation: Predictors in Childhood and Outcomes in Adulthood*. Institute of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pp. 1-30, 2003,
- [18] S. Bosacki, A. Dane, Z. Marini, & YLC-CURA. Peer relationships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ts: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Emotional & Behavioural Difficulties. 12*(4), pp. 261-282. 2007.
DOI: <https://doi.org/10.1080/13632750701664293>
- [19] M. R. Leary, E. J. Koch, N. R. Hechenbleikner, Emotional responses to interpersonal rejection. In M. R. Leary (Ed.), *Interpersonal rejection* (pp. 145-18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20] J. N. Kingery, C. A. Erdley, K. C. Marshall.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as predictors of early adolescents' adjustment across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Merrill-Palmer Quarterly, 57*(3), pp. 215-243. 2011.
DOI: <https://doi.org/10.1353/mpq.2011.0012>
- [21] K. H. Rubin, K. Burgess, A. E. Kennedy, S. Stewart. Social withdrawal and inhibition in childhood. In E. Mash & R. Barkley (Eds.). *Child Psychopathology*, (2nd edition). New York: Guilford, pp. 372-406, 2003.
- [22] K. Rubin, R. J. Coplan, J. Bowker,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11), pp. 1-31, 2009.
DOI: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60.110707.163642>
- [23] K. H. Rubin, J. Asendorpf,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Hillsdale, NJ: Erlbaum, 1993.
- [24] J. D. Coie, K. A. Dodge, H. Coppotelli, Dimensions and types of status: A cross-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4), pp. 557-570, 1982.
DOI: <https://doi.org/10.1037/0012-1649.18.4.557>
- [25] S. Hymel, K. Rubin, L. Rowden, L. LeMare,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Longitudinal prediction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middle to lat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6), pp. 2004 - 2021, 1990.
DOI: <https://doi.org/10.2307/1130854>
- [26] K. H. Rubin, X. Chen, P. McDougall, A. Bowker, J. McKinnon, The Waterloo Longitudinal Project: predicting 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early and mid-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7*(4), pp. 751 - 64, 1995.
DOI: <https://doi.org/10.1017/S0954579400006829>
- [27] H. Gazelle , K. D. Rudolph. Moving toward and away from the world: social approach and avoidance trajectories in anxious solitary youth. *Child*

Development, 75(3), pp. 829 - 49 2004.
DOI: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4.00709.x>

- [28] W. Oh, K. Rubin, J. Bowker, C. Booth-LaForce, L. Rose-Krasnor, B. Laursen.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middle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4), pp. 553 - 566, 2008.
DOI: <https://doi.org/10.1007/s10802-007-9199-z>
- [29] Y. J. Cho, H. W. Joo, M. H. Hyu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victimization in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6(2), pp. 59-81, 2015.
DOI: <https://doi.org/10.14816/sky.2015.26.2.59>
- [30]. S. H. Kim, K. Y. Kim, Development of Behavior Problem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6(4), pp. 155-166, 1998.
DOI: <https://doi.org/10.5124/jkma.1998.41.2.155>
- [31] D. L. Bandalos, S. J. Finney, Item parceling iss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G. A. Marcoulides, R. E. Schumacker (editor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developments and techniques*. Mahwah, NJ: Erlbaum, pp. 269 - 296, 2001.
- [32] G. C. Armsden, M. T. Greenberg,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16(5), pp. 427-454, 1987.
DOI: <https://doi.org/10.1007/BF02202939>
- [33] S. H. Hong, S. K. You,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nd Multigroup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8(1), pp. 381-392, 2004.
- [34] S. J. Lee, S. H. Hong, H. K. Park, The study on the personal and social influence on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4), pp. 1179-1197, 2005.
- [35] K. M. Cung, M. J. Shin, J. H. Kang, E. S. Kim, Identification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in male adolescents: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using growth modeling,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1), pp. 177-197, 2013.
DOI: <https://doi.org/10.15842/kjcp.2013.32.1.010>
- [36] G. S. Park, Y. H. Park, S. H. Ko,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periences in Puberty *Qualitative Research*, 13(2), pp. 79-91, 2012.
- [37] K. R. Wentzel, C. M. Barry, K. A. Caldwell, Friendships in middle school: Influences on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2), pp. 195-203, 2004.
DOI: <https://doi.org/10.1037/0022-0663.96.2.195>

김 경 은(Kyoung-Eun Kim)

[정회원]



- 1997년 2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학석사)
- 2007년 2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학박사)
- 2007년 3월 ~ 2009년 2월 : 고려대학교 사회정서발달연구소 연구교수
- 2009년 3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발달, 창의성교육